

ALL ABOUT 생리; 첫 번째 시간 – 모임후기

2016. 09. 10

지난 토요일 페미레인저의 '올 어바웃 생리' 프로젝트의 첫 모임이 있었다. 페미레인저는 뜻을 함께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페미니즘의 이론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이다. 그간 모임원들끼리 책을 읽고, 함께 페미니즘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시위에 나간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페미레인저의 주도로 행사를 진행해본 적은 없어 조금 떨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면서도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우려와는 달리 SNS에서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 페미레인저 구성원 중엔 팔로워 수가 천 명이 넘는 파워 트위터리안도 있다. 또한 각자 그간 강의를 듣거나 혹은 활동을 하며 만난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홍보에 도움을 주었다. 그 덕인지 많은 수의 인원이 프로젝트 홍보게시물을 리트윗했고, 공식계정의 팔로우 수도 50여명을 넘었다.

그러나 홍보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 페미레인저에 생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며 프로젝트 이름으로 정한 '피자매연대'가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페미니스트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피자매연대'는 본인이 처음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제안한 이름이다. 그 이름을 가진 똑같은 단체가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한 건 순전히 나의 불찰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리트윗하고 마음글에 담아두었던 첫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름도 '올 어바웃 생리'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행사에 참여하려다가 참여하지 못한 신 분도 생겼을 것 같아 마음의 무거웠다.

'올 어바웃 생리' 당일, 페미레인저 구성원은 서울시NPO센터에 한 시간 일찍 모여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시작 시간이 점심때라 간단한 다과와 끼니가 되는 김밥도 준비했다. 프로젝트에 이용할 각종 문구류와 종이도 테이블에 배치해두었다. 페미레인저 구성원을 제외한 다섯 분이 모임의 참가 의사를 밝히셨다. 그러나 열두시가 가까워 와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한 멤버가 농담으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춤이나 추자고 얘기한 덕에 긴장이 많이 풀어졌다. 다행히 열두시가 되자 세 분이 강의실의 문을 두드려주셨다. 한 분은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이었고, 다른 두 분은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의 일원이셨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세 분 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니 아는 사이인 것처럼 반가웠다.

간단한 자기소개가 끝난 뒤, 우리는 먼저 개인의 생리그래프를 그려보는 '생리 롤러코스터 그리기'시간을 가졌다. '생리 롤러코스터'는 생리를 시작한 순간이나 혹은 그 이전, 생리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생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그리는 활동이다. 페미레인저에선 모임을 준비하며 마인드맵그리기를 통해 자유연상으로 생리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고, 개인 경험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터라 이 활동이 어렵진 않았다. 그러나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소낙'님과 '다질'님은 쉽게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셨다. 생리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충분히 시간

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는 도중에 과거의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셨는지, 부분 다 롤러코스터를 멋지게 완성하셨다.

‘생리 롤러코스터 그리기’ 활동의 좋은 점은, 지금까지 터부시됐던 생리얘기를 공적으로 하고, 동시에 ‘보편경험’처럼 그려지는 생리를 나의 ‘개인의 경험’으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생리를 하는 주체이지만 생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여성은 많지 않다. 우리는 매 달, 혹은 사람에 따라 몇 개월에 한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도 생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생리대광고 속 ‘깨끗한’ 이미지나 생리통, 배변활동장애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 중 나는 후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 주변에 생리통이 무척 심해, 생리 중간에는 거의 활동을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다가 ‘생리는 고통’이라는 주장이 현재 페미니즘 담론에서 전략적으로 지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생리통이 적은 편이라 생리가 고통이 되었던 적이 적다. 또한 생리를 할 때 외려 배변활동이 활발해지고, 대체로 성욕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게 체험되는 생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생리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었다. 한 달에 세 번이 넘게 생리를 한 경험이 있는 분과, 학창 시절 기숙사에서 살아 생리가 묻은 이불을 손빨래하며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체험하셨다는 분의 얘기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생리에 대한 얘기가 무척 인상 깊었다. 또한 생리를 시작한 초반엔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자라면서 직접 생리의 번거로움과 불편함,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생리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던 경험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도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많은 여성이 생리로 인해 생리통이나 월경 전 증후군 같은 직접적인 고통과 생리대로 인한 짐무름, 활동제약 등 간접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리에 대한 담론이 공적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웠다.

생리에 대한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두 번째 활동으로 준비했던 생리 마인드맵 그리기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리 롤러코스터 그리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생리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감정이나 또는 중립적인 생각(예; 생리와 임신의 상관관계 등)이 충분히 나왔기에 더 깊은 논의로 나아가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참여자들의 의사를 묻고, 두 번째 활동을 생략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활동은 박이은실의 <월경의 정치학>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사전에 모임을 공지할 때 책을 읽고 느낀 점과 또는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준비해오시라고 공지를 드린 상태였기에 이 부분 또한 수월하게 지나갔다. 책을 읽고 오지 않으신 분도 있었지만, 페미니즘과 생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분들이셨기에 토론에 참여하는데 무리는 없었다. 각자 <월경의 정치학>을 읽고 느낀 점을 간략히 나눈 뒤 바로 토론으로 넘어갔다.

모임준비 하며 페미레인저는 몇 가지 토론주제를 뽑아뒀었다. 그 중 하나가 ‘PMS’라는 명칭에 대한 것이다. PMS는 ‘월경전증후군’의 약어로 생리 전이나 혹은 생리 도중 감정적으로 심한 변화를 겪는 것을 일컫는다. 일전에 ‘페미당당’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한 가정과의

사는 이 증상에 대해 설명하며 심한 월경전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정신과 상담을 통해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박이은실의 책에서는 그동안 남성위주로 담론이 형성되던 의학계에서 PMS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생리를 여성의 몸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질병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리를 하면 불안과 우울한 감정이 들었는데 이것에 PMS라는 명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전 불안이나 우울이 찾아와도 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며 PMS의 단어사용을 긍정했다. 반면 어떤 참가자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했을 때, 괜히 사람들이 '너 생리하냐?'라고 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월경시기의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질병화하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어려운 주제였지만, 최종적으로는 'PMS'처럼 여성이 자기 몸이 겪는 변화에 대해 어떤 명명을 함으로써, 언어화하는 것은 옳지만 여성 몸의 변화를 질병화하는 것에는 주의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해진 토론주제가 있었지만,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주제가 나와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전되었다. 그 중 하나가 생리대광고에 대한 얘기였다. 한 참가자가 생리광고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그걸 보고 정말로 생리가 푸른색이거나 혹은 배변처럼 참을 수 있는 걸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한 게 시작이었다. 여기에 더해 참가자 중 한 분은 생리대광고에서 생리할 때도 남자친구를 위해, 혹은 '여성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흰 바지나 치마를 입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성차별적이라는 걸 지적해주셨다. 생리에 관한 것 중 유일하게 대중매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생리대 광고다. 생리대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그 사회의 페미니즘이 얼마나 자리 잡았는가 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리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분명 유의미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리대광고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문득 대중문화에서 생리가 재현된 적이 얼마나 있나 하는 질문에 부딪혔다. 우리는 각자가 아는 영화, 드라마에서 '생리'가 등장한 장면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 목록은 아주 짧았다. 최근 방영중인 다섯 명의 여성주연이 등장하는 드라마한 편과 남장여자가 출현하는 로맨틱 코미디 한편(이 드라마에서 생리는 남성과의 차이점을 부각하려고 사용되었다.) 그리고 공포영화 '캐리'의 경우를 제외하곤 생리가 재현된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더 많은 페미니스트 창작자가 나와 여성에 몸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모임은 마무리되었다.

처음에는 페미레인저에서 활동자들이 너무 많아 참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는 기우였다. 서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려는 태도가 모든 참여자의 기본 자세였다. 덕분에 토론은 심도 깊게 이어졌고, 몇 사람에게만 치중된 것이 아닌, '모두의 토론'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더 오래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신의 생리경험에 대해, 혹은 내 몸이 지금도 겪고 앞으로도 겪을 한 과정에 대해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여성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간 얼마나 갈증이 났었는지를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페미니

증을 배우며 몰랐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또 그것을 언어화하는 힘을 얻는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홉명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몸과 또 생리를 하는 내가 놓인 지형에 대해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토록 넓고 깊고, 또 다양한 생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임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생리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겐 자신을 돌아볼 계기를, 또 자매들에게는 피로 연결된 유대를 심어주는 일이니까.

ALL ABOUT 생리; 첫 번째 시간 - 속기록

2016. 09. 10.

- 친구가 종교가 있었는데 집에서 생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다. 생리를 할 때 집안사람들이 무척 눈치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생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까? 생리혈도 숨겨야하는 것으로 치부되는데 음식을 먹다 흘리면 칠칠치 못하다 정도에서 그치는데 왜 생리는 새면 치부를 들킨 것으로 여겨질까? 생리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생리가 터부시되고 숨겨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 남성들이 여성의 초경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생리를 판타지화해서 다룬다든가, 성적 대상화하곤 하는데 실생활에선 생리가 터부시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라 생각된다. 월경의 정치학이 올드하다는 비판에 공감한다. 월경의 정치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학 도서를 읽을 때도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같은 여성 내에서도 세대격차를 느끼는데 '올 어바웃 생리'와 같이 페미니즘이 업데이트 되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생리를 왜 성적인 것의 연장으로 생각할까? 오히려 배란이 끝난 것이고 성적인 것이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생리에 관한 드립이 나오는 '은혼'의 움짤을 "은혼 역대 섹드립"이라 칭하는 트윗을 본 적이 있다. 생리인데 왜 섹드립으로 받아들일까? 생리를 왜 성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까? 여성의 몸 자체가 대상화되기 때문에, 생리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성적대상화 되는 것 같다.
- 지하철의 임신부석에 앉은 임신부를 두고 남성들이 '질싸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 받았다. 생리, 임신을 성교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 같다.
- 생리 할 때의 여성이 아닐 때의 여성보다 성적인 매력이 높다는 연구를 보았다. 생리를 섹슈얼적 텐션과 연결시키는 연구들이 범람하는 것 같다.
- 생리가 젊은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 코드로 사용되는 것 같다.
- 생리 할 때의 상황을 특이한 것이라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고이다. 생리를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를 몰라서 할 수 있는 것 같다.
- 남성들의 성생활에 대해선 기준을 나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 남성이 인기가 매우 많은데 그것이 정자의 건강함과 비례되는가? 와 같은 연구는 없는데 왜 여성은 생리와 매력을 연결 지어서 연구를 하는 것일까. 게다가 매우 이성애중심적인 연구이다. 배란기의 여성을

레즈비언 여성이 더 선호하는가? 와 같은 연구는 없지 않은가.

- 생리의 호칭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마법', '그 날'과 같은 단어는 생리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 낸다.
- 생리대 광고도 문제이다. 사실 생리는 산뜻함, 뽀송함과 거리가 먼데 그런 이미지만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사실 생리는 여성들을 묶고 연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엔 그런 내용보단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며 "남자친구에게 생리하는 것을 들키지 않는 나, 짱이야!"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광고는 생리를 들키지 않아야만 '멋진 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리대 광고의 여성들은 대개 딱 달라붙은 흰 청바지를 입고 있다. 생리대 광고에 나오는 여성마저도 성적대상화 된 여성인 것이다.
-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사면 검은 봉투에 넣어주는 것을 매우 센스 있는 행위라 여긴다.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생활용품일 뿐인데. 왜 생리를 숨겨야 센스 있는 것일까. <월경의 정치학>을 읽고 생리를 각자 본인들의 가치판단을 토대로 다시 재정립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좋았다.
- <월경의 정치학>을 읽고 매우 슬펐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월경에 대한 지식은 월경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 또한 월경터부를 내면화하고 재생산해왔기 때문에 월경에 대한 적극적 가르침을 주기가 힘들다는 부분이다. 또, 종교와 생리를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매우 선하게 다가왔다.
- <월경의 정치학>에서 여성이 월경터부를 내면화, 재생산하는 부분의 예시로 학교에서 여자선생님이 아닌 남자선생님이 월경에 대한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서 가르친다고 나온다. 남성만이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 <월경의 정치학>을 읽으며 생리에 대한 효과적인(?)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을 어떻게 짜고, 전선을 어떻게 구축해야지 생리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와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선 이제까진 생리에 대한 양가적 입장에서 나쁜 것들을 지워내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지워내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왔다면 이젠 양가적 입장 중 하나만이 아닌 모든 것을 지워내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난 그것에 동의하진 않는다. 나는 오히려 양가적 입장의 어느 것도 지워내지 않은 채로 생리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괜찮다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 생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요 근래 생리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생리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면만 부각 되냐는 논의가 가장 활발한 것 같은데 사실 생리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왜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 시키냐'고 두둔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생리 롤러코스터'를 기획할 때도 혹시 참가자들이 부정적인 경험만 이야기 하는 건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험만 나오면 뭐 어때? 로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생리터부를 만들어내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다.

- 생리를 신성시 시키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생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내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월경의 정치학>을 읽고 생리는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를 처음 겪으면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니다.
- <월경의 정치학>을 보며 전 세계의 여성들이 공통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흥분되었다.
- 책에서는 PMS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생리를 질병화 하는 거라고 설명한다. PMS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가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PMS'라는 이름을 붙여서 병리화 하는 것이고 때문에 PMS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얼마 전 모임 구성원 몇몇이 페미당당 생리세미나를 갔을 때는 반대의 의견을 들었다. 거기 오신 의사 선생님께선 PMS언급을 하면서 이건 질병이고, 그렇기에 힘들면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을 받아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들으니 PM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생리의 질병화·타자화인건지, 아니면 그간 막연히 느끼기만 했던 생리 전 고통이 PMS라고 명명을 함으로서 나와 생리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주는 건지 의문이 생겼다.
- 예전에는 PMS를 몰랐기에 더 싫었다. 그래서 PMS기간이 되면 자학했다. 왜 이렇게 멍청해지지 하고. 그러나 단어를 알게 되고 나서 이걸 병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이렇게 나처럼 스스로 병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외부사람이 저 사람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건 다르다. "너는 뇌가 자궁에 있냐?" 라는 말과 같이 폭력적이다
- PMS의 병리화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병리화하고, 더 연구가 이뤄져 치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 걸린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고 병리화는 나쁘지 않다. 병리화가 늦게 이뤄진 것도 여성의 질병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까 대화할 때 어떤 분이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애 낳으면 괜찮아진대"라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듣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나는 산부인과에 가서 들었다. 애 낳는 거 말고는 치료방법이 없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다른 질병은 뭐가 좋더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생리에 관해선 정보가 너무 적다. 생리가 여성의 일이기에 연구가 늦게 이뤄져서 그런 것 같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병리화해서 치료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 PMS는 질병이다. 문제는 생리와 생리질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 생리 자체를 너무 다른 것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생리하면 예민해진다. 생리통이 없고, 양이 안 많은 날에는 괜찮다. 이처럼 나의 경우는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과 연결되는 경우인데, 생리통과 상관없이 PMS가 있는 사람은 별개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본다. PMS를 생리와 분리해서, 생리할 때 일어나는 질병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 '나 감기 걸렸어' 라고 하면 '아 너 감기 걸렸어? 약 먹으면 되겠네'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

는데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하거나 생리할 때 생리통이 있다고 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 활동을 못하는 것이 그 때문이란 경우가 왕왕 있다. 사실 감기를 자주 걸리는 사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걸리는데 생리가 정말 한 달에 한번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게 질병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은가. 또한, 질병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 같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질병이면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다. 생리와 관련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 '한 달에 한 번씩 쉬면 일 효율이 안 좋으니까 남자가 더 회사에 많은 거다' 란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리통이 심한 나는 많이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정말 한 달에 한번쯤은 감기 걸릴 수 있는 거고 한 달에 한번쯤은 몸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생리 또한 어찌 보면 별 일이 아닌데 과장되게 다뤄지고 있지 않은가. 생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나는 월경이 진행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는 것이 빨리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월경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분들과 연대를 하며 증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경험만을 말하는 분위기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긴 힘들다. 월경에 대한 개인차가 어서 강조되어 "나는 그렇지 않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일반적인"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염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결국엔 생리에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경험만이 부각되는 것 같다. 생리 운동의 전략에 대한 문제랑 연결해서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 생리에 대해선 생리통이 심한 경우만 강조가 되었다. 물론 스테레오 타입을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생리에 대한 제도를 만들 때도 생리로 인한 고통이 가장 극심한 분을 기준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리통의 고통에만 매몰되어서 생리에 대한 다른 경험이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있다.
- 생리공결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적다. 친구가 노동법 강의를 듣고 왔는데 노동법 안의 생리공결에 대한 구절을 보면서 강의에 참석하신 다른 노동자 분들이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다 한다.
- 생리가 고통스러운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리에 대한 개인편차가 무척 심하다. '생리=고통'이라는 의견에 매몰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생리를 운동으로 가져갈 때 다양한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과연 (생리를 통한) 여성운동에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퀴어운동에서 가시화를 위해 스테레오 타입을 만드는 것처럼 생리의 가시화를 위해선 기존의 생리는 고통을 전시한다던지 PMS의 질병화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생리공결제가 만들어진 상태이나 사람들이 생리공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물론 생리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 완경하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싶다. 폐경을 완경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엔 다들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만, 완경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딱 "생리가 끝나서 좋

다.”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완경을 하게 되면 신체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분명 건강을 위해 관리해야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 생리의 경험의 개인적 격차를 가시화 하는 것을 동의한다. 여성혐오의 문제 중 하나는 “여성”을 “여성”으로만 보는 것이다. 생리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 책에 생리를 싫어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이 생리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생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설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존의 시설들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뭘 느꼈냐면 정말 모든 화장실마다 비데가 있고 휴지가 많고 너무 쾌적하다. 근데 지하철화장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비데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근데 급하게 새는 것 같든지 할 때 너무 사용하기 힘든 화장실이 많다. 이게 제국을 거친 나라와 식민지나라의 차인가, 기반시설이 너무 차이나니까. 근데 비단 그 나라도 생리하는 여성이나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차이에서도 느끼고.
- 가끔 화장실 가면 미관상의 이유로 그냥 휴지는 변기에 넣고 버리면 된다고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이 있다. 생리를 할 때든 안 할 때는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럼 생리대 저기에 버리고 막히면 튀면 되는 건가. 어쩌라는 건지, 약 오르니까 펼쳐놓고 도망갈까. 많은 생각을 한다. 미관상이고 자시고 당장 생리대를 버릴 데가 없으면 정말 곤란할 텐데 뭐하는 짓일까. 그런 데가 생각보다 꽤 있다.
- 미관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면 생리혈 묻은 생리대를 들고 나오는 미관은 어쩔 건지.
- 그게 진짜 이상한 미관이다. 화장실 문 닫으면 틈새 벌어져서 보이는 마당에 무슨 미관을 따지나.
- 기본은 하고 미관을 챙겨야지. 기본도 안하고 미관을 챙긴다.
- 또 생리대 수거함에 ‘생리용품’이 아니라 ‘위생용품’ 혹은 ‘여성용품’이라고 써둔다.
- 여성용품, 내가 쓰는 여성용품이 몇 갠데. 여성용품은 대체 무엇인지.
- 특히 화장실이 젠더 이슈랑 관련해서 문제적인 장소인 것 같다. 아까 말씀처럼 틈새도 그렇고, 미관을 따질게 아니라 안전문제가 강화돼야한다. 미관 때문에 생리용품을 바깥에 버려야하고, 근데 그런 것이 인테리어를 공들인 백화점등의 신축건물에서 더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공용화장실이 있는 게 낫다고 한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바랬는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그런걸 없애니까 수술을 안했거나, 굳이 외모를 성형하지 않은 사람도 정체화를 할 수 있

는데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이 젠더이슈 관련해서 어렵고 문제적인 장소라고 생각된다.

- 화장실이 더 어려워진 게, 공용화장실에 대한 공포가 강남역 살인사건 뿐 아니라 몰카도 그렇고, 층위가 복잡하다. 만약에 공용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여자화장실 자리가 없어서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너는 남자가 훔쳐봐도 된다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하철 칸 문제처럼. 아까도 화장실 가신 분 있으면 아시겠지만 위에 붙어 있다. 남녀화장실 나누어져 있는데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붙어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한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 바뀌어야 할게 많다. 기반시설이나 인식 등.

페미레인저

<사진자료>



그림 1 생리 롤러코스터



그림 2 생리 롤러코스터를 소개하는 모습(1)



그림 3 생리 롤러코스터를 소개하는 모습(2)



그림 4 생리 경험담을 나누는 참가자(1)



그림 5 <월경의 정치학> 세미나